

고흥군 드론산업 육성 조례 본격 시행

1일부터 적용... 공공서비스·실용화 등 지원

고흥군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으로 떠오른 드론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흥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고흥군의회 제280회 임시회에서 ‘고흥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1일부터 적용됐다.

조례안은 드론 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드론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 드론 관련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드론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드론 관련 각종 행사 지원, 창업지원 및 드론 산업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등 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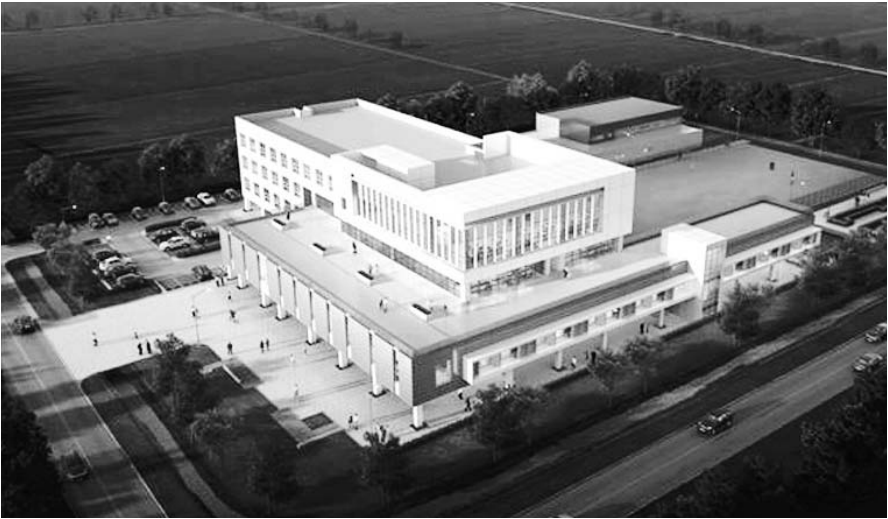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정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전국 유일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및 드론평화 지식산업센터 등 인프라를 활용한 드론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드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 작성 및 규제발굴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고흥군은 드론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규제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조례안이 시행되면서 고흥군이 드론 산업의 메카가 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며 “드론 산업이 집적화된 개발-실증-인증-보급 등 토탈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과 드론 서비스 시장 개척을 통해 국내 최대의 드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이 추진하는 드론평화 지식산업센터는 고흥항 항공센터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9124㎡ 규모로 총 178억원(국



고흥군이 추진하는 드론평화 지식산업센터 조감도.

비 125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 입주 공간(25실), 창업보육실 및 기업지원 시설, 드론 체험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1년 준공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

구례군 산수유산업 주민주도형으로 추진

간담회 갖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발굴



산수유 생산량의 63%를 차지하는 구례군에서 산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된다.

구례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산동면 지역 발전혁신협의회 회원과 산수유 재배주민 및 가공제품 생산자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에 대비한 사업 계획 발굴을 목표로 머리를 맞대고 주민주도형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산수유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례의 경우 산수유 산업 특구 지정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이며, 오는 9월 세계 중요농업 등재를 추진 중이다.

구례 산수유가 전국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만큼 구례군도 산수유 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산수유 제품 가공공장 지원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펼쳤으나 지역산업 전반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다.

구례군은 이에 따라 산수유 산업을 통해 재배부터 가공, 체험, 축제까지 1차에서 6차산업까지 모든 산업으로 파급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 구상단계부터 주민대표로 구성된 산동면 지역발전혁신협의회 회원과 산수유 산업과 관련된 모든 지역민이 참여하고 각기 산수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전국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산수유를 활용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찾겠다”면서 “구례 산수유가 전국을 넘어 세계적인 산수유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주민과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고흥군청 1층에 ‘소통·공감’ 북카페 개장

장애인단체 운영... 소통행정 창구 역할 기대

고흥군청 1층 로비에 장애인 단체가 운영하는 북카페가 문을 열었다.

지난 1일과 2일 임시개장에 이어 지난 5일 정식 개장한 북카페는 다양한 교양 서적과 관광 홍보, 정책 자료 등이 비치된 독서 공간과 장애인 바리스타가 제조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숍과 매점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장애인들과의 소통·공감 향상을 위해 지난 5월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자 모집 공모를 실시해 ‘고흥군신체장애인

협회’를 운영자로 선정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북카페가 군민과 공무원 간 소통·공감의 장으로 활용되고, 서로 공감하는 소통행정 창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문을 연 북카페는 행정문화 혁신을 통한 군민 소통 공간 확충과 장애인형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라는 송귀근 고흥군수의 공약 실천 사례 중 하나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iju@

보성군 ‘우리가락 열씨구 학당’ 운영

8월 한달간 12개 마을회관에서

보성군이 8월 한 달간 12개 읍·면 마을회관에서 ‘우리가락 열씨구 학당’을 운영한다.

우리가락 열씨구 학당은 서편제 보성소리의 본 고장인 보성군 주민이 판소리 한 대목을 부를 수 있고 우리 소리를 즐길 수 있도록, 보성 출신 명창들이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판소리 및 국악 등 우리가락을 가르치는 사업이다.

판소리 수업은 보성군 12개 읍·면 36개소에서 주 1회 총 144회로 이뤄지며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판소리 한 대목과 민요, 국악기 체험 등 다채로운 판소리교실로 무

더위를 날려버릴 예정이다.

강사는 전남도립국악단 창작 삼입단원이며 2006년 제14회 전국 임방울 명창대회 대통령상을 받은 박춘명 명창과 1996년 목포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보성에서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는 한정하 명창, 2011년 명창박목주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선민숙 명창, 신세대 국악인으로 보성아리랑예술단 대표인 이유나씨 등이 맡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우리의 고유문화가 보전 계승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곡성군 유기농쌀 백세미 서울서 큰 인기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장서 홍보 방문객 관심

곡성군에서 생산되는 유기농쌀 백세미가 서울서 열린 무역박람회장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석곡농협과 함께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열린 제18회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장에서 유기농쌀 백세미를 홍보해 성과를 냈다.

올해로 세번째 참가한 곡성군은 ‘누룽지향 가득한 특허쌀 유기농 백세미’라는 타이틀로 홍보관을 운영했다. 현장에서 백세미로 밥을 짓자 박람회장에 가득 누룽지향이 전해지며 방문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았다.

백세미를 시식한 방문객들은 “특유의 식감과 누룽지향에 반찬 없이 밥만 먹어도 될 정도”라며 극찬했다.

홍보관 한 편에서는 1kg, 4kg, 10kg 포장 백세미가 불티나게 판매됐다.

백세미 홍보를 위해 유근기 곡성군수도 직접 홍보관을 찾았다.

유 군수는 “곡성 백세미의 쫄깃한 식감과 은은하게 퍼지는 누룽지 향은 옛날 어머니가 해주신 가마솥 밥을 떠올리게 해 준다”며 방문객들에게 백세미를 홍보했다.

한승준 석곡농협 조합장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일본여행을 취소한 국민에게 10kg 백세미 500포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면서 “이번 박람회에서 방문객들의 뜨거운 관심에 백세미의 인기를 다시 한 번 실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대표 유기농쌀 백세미는 2017년 친환경유기농박람회에서 국회의장상, 2018년에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쌀로 자리매김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유근기(가운데) 곡성군수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유기농무역박람회의 백세미 홍보관을 찾아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 무료 물놀이장으로 피서 오세요”

여름 휴가철 맞아 개장

곡성군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무료 물놀이장이 잇따라 개장했다.

곡성군은 섬진강기차마을에서 8월 한 달 동안 무료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약 1000㎡의 규모로 운영되는 물놀이장에는 에어 풀장, 에어 슬라이드 등이 구비되어 다양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사위실, 쉼터 등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됐다.

섬진강기차마을 물놀이장은 오는 30일까지 기차마을 내 중앙광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월요일은 휴장)된다.

기차마을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석곡면 대항강자연휴식체험장 내에도 18일까지 2주간 어린이 물놀이장이 무료

로 운영된다.

곡성군은 꾸밈없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석곡면 대항강과 반구점 습지를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근 자연휴식체험장 조성을 최근 마무리했다.

자연휴식체험장 정식 운영에 앞서 어린이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이번 물놀이장을 임시 운영하게 됐다.

체험장 내에 약 1680㎡ 규모로 조성된 물놀이장에는 물놀이형 조합 놀이대, 정글 물놀이, 워터 드림, 야자수 버킷 등 다양한 어린이 놀이시설과 샤워실 및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물놀이장 인근에는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했다”며 “수건, 돗자리, 수영복 등 물놀이 관련 용품은 방문객들이 직접 준비해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덕남동, 임야 매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

문의. 010-6834-7400